

W:WOOSUNG

2023년 8월

#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8월 4주차 HOT ISSUE

- 농협, 배합사료값 인하 단행
- 구제역 항체율 미달 즉시 과태료





## 저지종 산업화, 희소가치 살린 연착륙이 관건

환경부담 완화·품종 다양화  
통한 원유 경쟁력 제고  
도입 목적

저지종 산업화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농가현장을 반영한 치밀한 전략 구상이 요구되고 있다. 저지종은 유단백, 유지방 등 유고형분 함량이 높아 유가공품 생산에 유리하고, 체내 소화·흡수가 좋은 A2 베타카제인 유전자 보유 비율이 높아 기능성 유제품 생산도 가능하다. 또한, 사료 섭취량이 적어 메탄가스와 분뇨를 적게 배출해 탄소중립 실현에 부합하는 품종이다. 이에 정부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홀스타인 위주의 백색시유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품종 다양화를 통한 국산 원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지종 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저지종 산업화 계획이 본래 취지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저지종이 대두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홀스타인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유생산량이 홀스타인의 70%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선 같은 두수를 키웠을 때 보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된다. 만약 수익 보전을 위해 저지종 두수를 늘리거나 참여가 저조하다면 탄소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농가 참여 유도과 수익성 보장을 위해 유대산정체계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사업 목적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환경부담 완화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다.





## 연일 폭염 기승... 원유 생산량 '뚝뚝'

현장마다 “두당 유량 5kg 가량  
줄었다” 토로  
더위 먹은 젖소들 가을 생산성  
후폭풍 우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낙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한증막 더위에 열대야까지 지속되면서 낙농가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국내서 사육하는 젖소품종은 대다수가 홀스타인이다. 홀스타인은 더위에 취약한 품종으로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 스트레스로 인해 사료섭취량이 떨어지면서 원유생산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 농촌진흥청 따르면 홀스타인은 27도를 넘어서면 사료섭취량이 4.2% 감소하고 우유생산량은 21~23도일 때보다 8%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올해는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유난히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3분기 원유생산량 전망치(47만4천~47만8천톤)를 훨씬 밑돌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낙농가들은 안개분무기, 쿨링팬, 선풍기, 첨가제 급여 등 갖은 방서대책을 동원해 축사 내 온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떨어지는 원유생산량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 뉴질랜드 ‘가축 트림세’ 도입 향방에 낙농업계 ‘촉각’

2025년부터 가축 메탄가스  
배출량에 과세 부과 계획

뉴질랜드의 ‘가축 트림세’ 도입이 낙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질랜드 낙농은 방목 위주의 사육 환경 덕에 원유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이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의 넷제로(Net-Zero) 정책에 따라 연구개발, 과학부문 투자 등으로 낙농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0% 감축했다. 이는 주요 18개국의 평균치의 약 절반 수준이다. 그렇지만, 뉴질랜드 농업온실가스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48.1%가 농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이중 젖소 유래 배출량이 22.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농가단위의 과세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기 계획안에 대한 뉴질랜드 축산인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는 대국민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과세액 인하 및 5년간 가격 고정, 과세율 결정과 자금 사용용도 감시에 낙농업계 대표 참여, 세수의 R&D 재투자,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 낙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뉴질랜드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대기 중 메탄가스 방출량을 47%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정안이 축산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정부의 예측모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소·양 사육농가의 수익이 약 20% 감소해 많은 축산농가가 폐업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 구제역 항체율 미달 즉시 과태료

농축산부, 가축 방역 개선 방안  
백신 접종 및 검사 체계 개선  
경보 단계 3단계로 단순화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미달 농가의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제역 차단 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 농협, 배합사료값 인하 단행

kg당 21원...28일 부터 시행  
농축산부, 민간도 동참 당부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협은 오는 28일부터 농협사료의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300원(12원/kg)씩 인하하기로 했다. 농협은 여전히 높은 국제곡물가격과 최근 환율 급등으로 사료가격 조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해 등으로 힘들어하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2개월 이상 앞당겨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사료 가격을 조정(총 1,425원/포)하였으며, 이번 추가 인하로 연간 1천337억원 이상의 농가 사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앞서 두 차례에 걸친 선제적 가격인하로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결정하였다”며 “앞으로도 사료가격의 추가 인하 요인 발생시 가장 먼저 사료가격을 인하하여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료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종돈 수입 증가... PRRS 변이 등 질병 우려

2012년 이후 종돈 수입 급증  
계열화에도 양돈장 가세 영향  
강병원성 PRRS 변이도 증가  
무분별 종돈 수입 자제 여론



최근 양돈장과 종돈장이 경쟁적으로 해외에서 종돈을 수입하고 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종돈 수입이 각종 질병 유입 및 변이 등으로 이어질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에 따르면 8월 23일 기준 종돈 수입 두수는 1천986두를 기록, 전년 한 해 수입했던 1천546두를 이미 넘어서면서 지난 2017년(4천409두) 이후 가장 많은 종돈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종돈 수입 증가 배경에는 종돈장 계열화에 따른 신규 종돈장 수요에다 대형 양돈장을 중심으로 국내 후보돈 수급 문제, 국내 종돈장으로부터의 질병 유입 우려, 자체 후보돈 생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대형 양돈장들의 직수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이 수입 종돈 증가가 우려되는 점은 수입 종돈을 생산하는 해외 농장의 수가 많고 다양하며, 수입 빈도 증가, 수입을 통한 질병의 유입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동물약품 세미나에서는 종돈 수입 증가가 PRRS 병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서 한 수의과학 대학교수에 따르면 'NADC34 유사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PRRS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북미형 PRRS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대부분의 경우 높은 유산, 자돈 폐사가 발생한 강병원성 바이러스다.

특히 이 같은 바이러스 출현이 국내 종돈 수입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이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종돈장도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국내 종돈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후 PRRS 바이러스 변이도 심화하는 등 병원성이 강해지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 연일 폭염에 가금류 22만수 이상 폐사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100만수 소실 이어

태풍 피해도 남아...  
가금산물 공급차질 불가피



전국적으로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더위에 취약한 가금농가의 피해가 늘어가고만 있다. 수급불안이 야기됨은 물론, 농가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금류가 특성상 특히 더위에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인한 가금류의 폐사는 22만6천 670수다.

문제는 가금농가의 경우 지난 7월 전례 없었던 극한의 폭우로 농장들이 수해를 입어 100만수 가량을 소실한 이후 다시 피해가 겹쳐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농가들의 피해 누적은 당연한 결과다.

더욱이 기상청은 이달 중순 이후도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했다. 또한 제 6호 태풍 카눈은 지난 9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아직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 누적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충남의 한 산란계 농가는 “다행히 우리 농장은 수해를 피했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폐사가 계속 늘고 있다. 멀쩡하던 닭들이 자고 일어나면 죽어나가는 상황”이라면서 “축사 지붕에 30분마다 물을 뿌리고 대형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음수를 차갑게 해주는 것은 물론 비타민제, 미네랄제 등을 급여하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닭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 산란계농가들 2개 부처 지원사격 받는다

두 개 법인설립 목적 두고 소  
관 관청 인가 추진  
농식품부 허가 이어 중기부  
사단법인 등록 완료  
“ICT 융복합 시대 산란계산  
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산란계농가들이 중기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스마트산란계협회’ 창설을 알렸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7월 17일 ‘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이어 7월 21일 등기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설립은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일 경우 해당 관청 모두에서 허가를 받거나, 그중 하나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란계농가들은 ‘법인이 두 개 이상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일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법무부의 해석에 입각, 중지를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에서 허가를 추진한 것이다. 스마트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대한산란계협회장)은 “산란계농가는 농가당 평균 매출액이 약 26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준이며, ICT가 융복합된 장치산업이자, 생산·포장·가공·유통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이라며 “스마트산업 시대에 걸맞게 산란계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경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법인도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ICT 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이의 활용도가 큰 산란계농가에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하게됐다는 설명이다.